

# '살인 물가' 끝모를 상승

5월 생산자물가도 폭등 ... 10년만에 최고

유가급등 물가 상승 부추겨 ... 서민들 신음

물가가 천정 모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대에 근접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 선행지표 성격인 생산자물가도 두자릿수로 폭등하는 등 물가관련 각종 지표들은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물가 상승세의 끝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지표 **오동 빨간불**=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상승해 1998년 10월(11.7%) 이후 9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인 수입물가 상승률 역시 전달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4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1.3%나 폭등해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사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연쇄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도 5월 4.9%까지 치솟은데 이어 6월에는 5%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지표가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경유값이 전월대비 10.3%, 등유 14.7%, 휘발유가 7.2% 상승하는 등 대부분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1,000원대로 상승한 환율도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세 **당분간 계속**=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일 동중산 duba

승 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박사는 "생산자물가 증가율의 고점은 올해 3분기로 예상한다"며 "평균 생산자물가가 2분기에 10%선, 3분기에는 11%선으로 높아진 뒤 4분기에 한자리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락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리동결 기조 이어갈 듯**=이처럼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12월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고유가, 환율상승, 유동성 급증 등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금리인하 카드를 선불리 꺼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어 한은은 당분간 동결기조를 유지하며 물가와 경기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안팎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정부 'MB물가' 관리 칼뿔었다

공정위 라면업체 가격담합 조사 '신호탄'

서민경제 직결 품목 불공정거래 단속 확대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아쿠르트가 최근 라면 값을 16% 안팎인 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 직권으로 착수한 것으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2개 품목을 갖고 산출한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5월에 113.2로 작년 같은 달보다 6.6% 급등하는 등 생활물가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관세청이 청미자운동화·삼겹살 등 90개 수입품

이달 초 강연에서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업종이 원자재 값이나 물가상승에 편승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된 고시를 폐지해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격인상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오픈. 화순농협 하나로마트가 10일 화순읍 삼천리 화순농협 앞에 문을 열었다. 이 하나로마트는 9천900여㎡(3천평)의 대지에 2천480㎡(750평)의 매장을 갖춰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화순농협 제공)

## 경제 5단체장 "하반기도 경기전망 어둡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전망이 어둡고 노사정 간에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0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은 고유가나 기초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어려움이 있어 점차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짙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열 부회장은 "많은 예측 기관들이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0.5%까지 내리는 등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국내 업계의 투자와 내수부분도 하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5개월간 연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5월에 10억달러 흑자가 났지만 향후 수출전망은 50억달러 흑자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현대·기아차 'OECD 장관회의 차량 지원'. 현대·기아차 정진행 부사장, 정석균 장관회의 기획준비단장과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OECD 장관회의 차량 지원 및 서비스 발대식'을 갖고 지원차량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되는 차량은 회의에 참석하는 47개국 차·차관과 각국 대표단의 의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펀드매니저들 "1700까지 추가 하락"**

10일 증권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코스피지수가 1,700선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며 펀드매니저들이 견조해 1,750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달보다 34.58%(1.91%) 하락한 1774.38에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중국시장이 지난 주말 미국시장 급락을 반영하면서 폭락세를 연출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취약해지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펀드매니저들은 분석했다. 이들은 또 선물·옵션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수급 부문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들은 코스피지수 1,750선을 1차 지지선으로 전망했으나 최악의 경우 1,7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이익증가율이 양호해 약세장이 이어지더라도 코스피 1,750선을 하향 이탈하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상황이 되는 만큼 시장 붕괴 등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연합뉴스

## 미분양 주택 급증 ... 건설사 피마른다

3월말 13만채 ... 외환위기때 보다 30% 더 많아  
**商議, 대출규제·양도세 완화 등 정부 대책 요구**

외환위기 때보다 30% 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이 건의문은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천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98년말, 10만3천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자금압박→외부차입→금융비용 증가→수익상·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기회 및 이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하게 됐다"고 건의문 제출의 배경을 설명

했다. 상의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06년 1·4분기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동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부동산PF의 유통화(ABS) 발행 금액은 '07년 1분기에는 3천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PF발행금액이 760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 4월 한달에만 11개 업체가 도산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07년 4월 6개업체 도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현유화	관리부 경리업무 여성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3	062-944-8485
포리머스에이치알	[주5일]신한 고객만족센터/사무보조 여성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3	062-383-1756
우리	일반사무 및 경리 (세무사무소 경력유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4	062-361-7106
이르나리프래지오니	고객응대 및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360-1357
엘에스엠	생산/품질관리/공정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970-3520
해랑기획	정규직 편집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7	062-232-1747
우원&C	공무 및 카드 가능자 경력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6/18	062-575-6556
참빛건설	본사공무(현장총괄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2400~2600	06/18	062-651-5951
대광상사	재고관리, 물류, 배송, 프린트 판매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6/18	062-654-0624
대영하이텍	plc 및 자동제어업무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8	062-953-6444
디에스	CCTV설치 및 A/S기사	고졸/경력2년	1200~1400	06/20	062-351-8124
한진엔지니어링	전기기사님	고졸/경력2년	2600~2800	06/20	062-602-7477
동원건설	토목 및 건축공무 경력직	대출/경력3년	회사내규	06/20	062-606-6522
유니치	거래처 납품(교구·기구), 카드, 컴퓨터관련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20	062-672-80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공짜 기름이라도 넣자"

고유가 탓 보험사 '비상급유' 늘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적이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소량의 기름이라도 공짜로 받는 한 톨이라도 아껴자는 알뜰 소비 행태다. 그러나 이는 곧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게 돼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3~5월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0%가량 증가했다. 비상급유 서비스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등 주유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소량을 주유해주는 서비스다. 보험

특약의 하나로 가입한다. 손보업계 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3월 8천120건이었던 비상급유 건수는 올해 3월 9천285건으로 14.3% 증가했고 4월은 작년 7천28건에서 올해 8천533건으로 21.4%, 5월은 7천182건에서 8천618건으로 20.0% 각각 늘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주유소들이 공급하는 기름값은 작년 3월 휘발유 1천455.96원, 경유 1천185.85원에서 올해 5월 마지막 주 휘발유 1천876.62원, 경유 1천876.92원으로 크게 올랐다. /연합뉴스